

제1회 정보통신포럼 개최

'Cyber Korea 21' 주제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서 주관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달려있다.”

‘Cyber Korea 21’이란 주제로 지난달 8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정보통신포럼」의 참석자들이 강조한 말이다. 특히 남궁 석 정보통신부 장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세계경제는 국토의 크기나 자원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하여 좌우되는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 우리 나라가 미래에 경쟁력 있는 일등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

사이버코리아21은 우리나라를 21세기 정보화 일등국가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정보화 추진 정책. 정부가 사이버코리아21을 통해 노리는 것은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21세기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사회가 될 것이고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사이버코리아21의 수립 배경이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이 되는 정보 인프라를 조기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를 적극 추진하여 2002년까지 지금보다 100배 빠른 인터넷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국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2001년까지 인터넷 사용자를 1000만명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정보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뿐만 아니라 정보화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사태로 인한 고용구조 악화에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60년도 우리나라는 58%의 인구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1998년도 농업부문의 인구는 9.6%에 불과했다. 38년 동안 48%의 인구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부

문의 인력이 최근 IMF 경제위기로 인해 대규모로 퇴출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방법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지식정보화사회 개척.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가 복합된 정보기술(IT) 발전을 통해 생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게임, 정보제공업 등 각종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03년이면 세계 5위의 정보통신 대국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달 27일 「'99-2000 정보통신산업발전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정보통신산업을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주도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모두 6400억원이 지원되고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2002년까지 818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특히 정보통신 전문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멀티미디어컨텐츠산업 중점육성, 인터넷산업 활성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해 우리나라를 2003년까지 세계 5위권의 정보통신산업국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99~2000년까지 81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참신한 벤처창업 아이템을 발굴, 창업서 기술개발, 상품화, 마케팅 등 모든 과정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대학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강남·서초 등 중소소프트웨어기업 밀집지역을 서울소프트타운으로 조성, 자본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집적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5대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의 하위법령과 암호이용촉진법 등을 제정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업체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공키로 했다. 또 자체 배송망을 갖추지 못한 가상상점들의 공동 물류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온라인 정보 서비스업과 DB사업의 조세감면, PC통신과 인터넷 통신요금의 부가세 감면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계획대로만 된다면 늦은 산업화로 인해 겪었던 지난 100년간의 시련과 최근의 경제위기를 맞게 된 뼈아픈 경험을 교훈삼아 「국민의 정부」임기 내에 21세기 지식·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도 정보통신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보통신 업계와 정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정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지난달 8일 개최한 제1회 정보통신포럼이 그 첫 행사로 협회는 앞으로 도 정보통신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정장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과 손용기 부회장을 비롯해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장 등 정보통신 관련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